

고려해운 ...

창립 50주년 기념행사

고려해운(사장 전문준)은 4월 16일 오후 6시 소공동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볼룸에서 창립 5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이동혁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지금은 기회인 동시에 위기로 수익성 없는 기업은 영속성이 없다”라며 “2010년까지 최우량 선사 도약을 설정, 슈퍼라이너 KMTC를 목표로 보다 공격적인 경영과 책임경영을 수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축사에 나선 장승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1950년초 경제여건 어려운 때 창립한 고려해운은 자사선박이 70%인 견실한 기업으로 지난 20년 동안 흑자행진을 지속해 왔다”고 말했다.

한국선주협회 장두찬 회장도 축사를 통해 “1954년 4월 17일 이동혁 회장 선친인 이학철 사장이 창립한 고려해운은 현재 연간 80만TEU의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국내 대표적인 중견선사로 성장했다”라며 “1960년 6월 20일 선주협회 회원사는 11개 회원사로 현재까지 영속하고 있는 회사는 고려해운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한편, 고려해운은 지난 1954년 4월 17일 설립, 1973년 한국과 일본간 국내 최초로 컨테이너선 서비스를 시작했다.

현재 고려해운은 사선 17척과 용선 11척 등 총 28척의 컨테이너선으로 한국과 일본, 중국, 동남아항로 등에 컨테이너선 서비스 제공하는 국내 대표적인 근해선사로 자리잡았다.

지난해까지 19년간 흑자를 기록한 고려해운은 자회사로 고려훼리와 고려해운항공, 소양해운, KCTC, 울산컨테이너터미널(주) 등을 거느리고 있다.

대한해운 ...

17만DWT급 벌크선 발주

대한해운(사장 이진방)은 4월 13일 대우조선해양과 17만800DWT급 광탄선의 신조계약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대한해운은 이 선박의 취득금액이 680억원 규모로 오는 2006년 7월1일 인도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선박 사양은 길이 289미터, 폭 45미터이며 높이는 24.3미터이다.

이번 광탄선 신조계약은 한국남부발전과의 18년간 장기용선계약 이행을 위한 것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대한해운 관계자는 “이번 계약의 체결은 지난 1997년 LNG선 2척을 발주한 이래로 주춤했던 회사의 선박 신조가 국내조선소에 의해 오랜만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말했다.

대한해운은 또 “이 선박은 국내 최초 이중선체 구조로 설계된 선박으로 화물수송에 보다 안전을 기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신성해운 ...

스몰헨디급 5척 순차적 인도

신성해운(사장 박영규)이 4월부터 2005년 상반기까지 6,723DWT급 스몰헨디 일반화물선 5척을 차례로 인도받는다.

이들 선박은 파나마국적의 나용선(BBC)으로 작년초 선주측으로부터 건조후 넘겨받기로 계약됐다.

1차선은 선명이 ‘CANES’ 호로 4월 21일 선주측으로부터 인도받는데 이어 2차선과 3차선인

'HYDRA' 호와 'LEPUS' 호를 7월말과 11월 중순  
 계 각각 인도받아 항로에 투입한다. 또 4차선은  
 내년 3월 정도 건조될 예정이며, 5차선은 내년 상  
 반기쯤 인도받을 계획이다.

이들 선박의 특징은 철강 고단종 제품 수송에  
 적합, 단일화물 중량 30톤 이상도 운반할 수 있게  
 강도 높게 설계됐다. 이들 선박의 인도가 마무리  
 되면 신성해운의 사선과 나용선은 총 21척에 달  
 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성해운 손용학 과장은 "선박 건조가격이 오  
 르기 전인 작년초 신조 나용선 계약을 체결해 나  
 용선료도 현재보다 낮은 편"이라며 적절한 시기  
 에 신조 선박투입으로 시황의 수혜를 받을 수 있  
 을 것으로 예상되나 향후 시황을 장담할 수 없어  
 일단 운영해봐야 수익성을 따질 수 있을 것이라  
 고 말했다.

한편 신성해운은 현재 사선 14척과 나용선 1척  
 을 운항하고 있는 근해벌크선사로 포스코와 동  
 부, 하이스코의 철강제품을 주로 운송하고 있다.  
 신성해운의 작년 매출액은 670억원으로 전년대  
 비 13% 증가했다.

## 안진해운 . . .

### 평택항 컨부두 운영사로 선정

한진해운(사장 최원표)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이  
 평택지방 해양수산청으로부터 평택항 컨테이너 5  
 ~6부두 운영회사로 선정됐다.

한진해운을 중심으로 (주)한진, 장금상선, 선광,  
 KCTC, 시노트란스, 독일항만 회사 HHLA  
 (Hamburger Hafen-und Lagerhaus-AG), 경  
 기도청, 평택시, Dole Korea 등 11개 기업 및 지  
 방자치 단체가 참여한 한진해운 컨소시엄이

2004년 10월부터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총 100억원이 투입될 이 사업에서 한진해운 컨  
 소시엄은 5월 중 부두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10월  
 부터 동부두 5/6번 선석의 부두 운영 업무를 수행  
 하게 되며 향후 추가 개발 예정인 7/8번 선석에  
 대한 우선 협상권을 부여 받게 된다.

이번에 임대되는 동부두 5/6번 선석은 19만  
 2,000평방미터(약5만8,000평 규모) 면적으로 3  
 만톤급 선박이 동시에 2대 접안할 수 있으며 임대  
 기간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이다.

이번 입찰에는 싱가포르 PSA 및 대한통운, 세  
 방기업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 추진했으나 실패했  
 으며 한진해운 컨소시엄이 단독 입찰 선정됐다.

현재 미국의 롱비치 등에 9개의 전용터미널을  
 운영중인 한진해운은 이번 평택항 부두운영회사  
 로 선정돼 항만 하역 사업 진출에 더욱 박차를 가  
 하게 됐다.

## 현대상선 . . .

### 중국-북미간 신규항로 개설

현대상선(사장 노정익)이 북중국과 북미를 잇는  
 새로운 컨테이너선 항로를 개설, 북중국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다.

현대상선에 따르면 중국-북미서안간 항로  
 PCX(Pacific China eXpress)에는 3,000TEU급 컨  
 테이너선 5척이 투입되며, 쑤강(新港, Xingang)-  
 닝보(寧波, Ningbo)-상하이(上海, Shanghai)-  
 부산(Busan)-롱비치(Longbeach)-오클랜드  
 (Oakland)-부산(Busan)을 주 1회씩 정기적으로  
 기항하는 정요일 서비스로 4월 30일부터 본격적  
 으로 개시됐다.

이로써 현대상선이 중국과 북미서안간에 개설

한 항로는 총 7개에서 8개로 늘었으며, 무엇보다 이번 신규항로 개설로 북중국 지역부터 남중국, 홍콩까지 중국의 전지역에 걸쳐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수송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됐다.

이번에 북중국 시장을 특화한 신규항로를 개설한 것은, 아시아-북미간에서 중국을 기점으로 하는 수출입 컨테이너 물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미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북중국 지역에서의 물동량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공략하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현대상선측 설명이다.

현대상선은 이처럼 북중국 지역의 물동량 급증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이번에 개설한 신규 노선 선복량의 80%를 중국지역 물량으로 채울 예정이다. 이에 따라 중국 지역에서만 연간 13만TEU 이상의 물량을 추가로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대상선이 이번에 기항하게 될 상하이항은 2004년 1분기 기준으로 처리 물동량이 전년대비 25.8% 증가했으며, Ningbo항은 무려 42.5% 늘어나는 등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현대상선측은 “향후 2010년까지 중국발 컨테이너 물동량은 비약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중국의 항만개발이 가속화되는 등 중국은 이제 명실상부한 컨테이너 수송 시장의 중심으로 자리잡았다”며, “이번 신규 서비스 개시는 세계 최대시장으로 급부상한 북중국 지역의 물량을 선점하는 데 의미가 있으며, 이를 계기로 앞으로도 중국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영업력 강화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아해운

케미컬탱커 2척 신조 인도

홍아해운(회장 이윤재)은 노후선 교체를 통한 선대경쟁력 확보를 위해 2005년초 케미컬탱커 2척을 일본 사사키조선소로부터 인도받을 예정이다.

내년에 인도받는 신조 케미컬탱커는 1,200 DWT급 규모이다.

홍아해운은 현재 18척의 케미컬탱커를 운항하고 있으며 이중 14척을 사선으로 보유하고 있다.

한국해양소년단연맹

한서대학교와 산학협력 협정

한국해양소년단연맹(총재 이정화)과 한서대학교(총장 함기선)는 4월 30일 한국해양소년단연맹 2층 회의실에서 인적, 물적 자원 및 정보 등을 연계·활용·공유하여, 해양 및 레저스포츠분야의 인력 양성과 교육훈련 프로그램 연구, 개발 및 관련시설 건설사업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양 기관의 대표 및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산·학 협력 협정식을 가졌다.

한국해양소년단연맹과 한서대학교는 이번 산·학 협정을 통하여 △연구시설, 장비 등에 대한 공동사용 △해양산업·해양레저스포츠·해양교육 프로그램 공동연구 △해양산업·해양레저스포츠·해양교육프로그램 분야의 최신 연구자료 공유 및 세미나 개최 △해양산업·해양레저스포츠 분야의 관련 시설건립 및 추진위원회 구성 △한서대학교 졸업생의 취업 제공을 위한 공동의 노력 △양 기관의 이미지 극대화를 위한 상호 협조 △양 기관의 인프라 공동 활용 등을 약속했다.

특히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해양·레저스포츠분야의 전문지도자 및 레저마케팅전문가, 운영요원을 집중 육성함은 물론, 첨단 레저스포츠산업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현장 지향형 인재를 양성함

으로서 국민건강과 풍요로운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계속하기로 하였다.

## 한국국제대리점협회 . . .

### 해양대학교 산학협력체제 구축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회장 홍용찬)는 최근 한국해양대학교와 산학협력체제를 구축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는 국제해운대리점 업계의 전문인력양성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양대학은 해운물류전문인력 및 국제해운대리점의 인력양성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된다. 협회는 해양대학교 조만간 산학협정서를 체결하는 조인식을 갖기로 했다.

## 인사이드

### 범주해운

범주해운(사장 이상복)은 4월 1일부로 이명중 상무를 전무이사로, 정광순 부장을 이사대우로 각각 승진임명하는 등 정기승진인사를 단행했다.

(임원승진) △전무 이명중 △이사대우 정광순 △부장 김영일, 박규현, 최제홍, 신귀영, 박 환 △차장 조정열, 박재범, 김석현 △과장 김원식, 신동훈, 박성범 △과장대리 변재돈, 김영훈

### 범양상선

범양상선(사장 장진원)은 4월 6일부로 1개 영업 본부를 신설하는 기구조직 개편에 따라 임원 보직변경 및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보직변경) △이종철 전무 제2 영업본부장 → 기획본부장 △송영문 상무 기획본부장 → 제4 영업본부장

(승진 및 보직) △추성엽 이사대우→상무(제2 영업본부장) △정갑선 이사대우 → 상무(제3 영업본부장)

### 태영상선

태영상선(사장 박영안)은 4월 1일부로 재래선 영업팀 김경수 부장과 대리점영업팀 박정하 부장을 각각 이사로 승진시키는 등 7명에 대한 상반기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승진) △이사 김경수, 박정하 △부장 김순태, 이종만, 박인식 △차장 전태원, 이현기

### 한진해운

한진해운(사장 최원표)은 4월 1일부로 2004년도 직원 정기 승격 인사를 단행했다.

(승진 : 과장→부장) 강명환(마케팅팀), 강한중(서울판매지점), 김진홍(자재팀), 김태수(홍콩지점), 김호윤(구조조정실 파견), 박 훈(콜롬보지점), 선영훈(전용선팀), 성기업(벌크전략팀), 송무현(인력관리팀), 송주암(벌크 DRY영업팀), 신상영(시애틀지점), 신성식(로텔담지점), 심동협(부다페스트영업소), 심우성(영업전략팀), 옥영충(부산판매지점), 유조혁(심천지점), 이강운(기획전략팀), 이정은(한국서비스센터), 이종연(런던지점), 이호걸(함부르크 구주지역본부), 여경상(벌크 WET영업팀), 장명준(세나토 파견), 전도진(대만지점), 조성훈(심사팀), 성범수(환경안전팀), 오승훈(운항팀), 장승환(운항팀), 황창호(정비팀), 류문필(운송팀), 전성덕(심사팀)